

## 갑오경장기의 문법

이 경 우

(호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서론

개화기란 국어사에서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그동안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근대국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며 특히 개화기 시대는 과도기로 취급되어 독자적인 연구대상으로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다. 19세기말 20세기 초의 국어는 근대국어적인 요소와 현대국어적인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개화기는 소급적인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국어사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9세기말 이른바 개화기 국어의 특징은 19세기 전기 또는 그 이전 국어와 20세기초 이후의 현대국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어휘는 변화 속도가 빠르나 구문은 문체와 어휘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느리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비교가 필요하다.

개화기를 대표하는 자료로서는 신문류와 교과서류와 신소설이 있는데 신소설은 대화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경어법을 연구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 그외에 조사에 대한 연구와 어미 종류와 통사 구조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고찰해 보겠다.

## 2. 경어법

국어의 경어법은 대접받는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즉 주체경어법과 객체경어법과 상대경어법으로 나뉜다. 주체경어법<sup>1)</sup>은 존경의 선어말 어미 '-시-'에 의해 나타난다. 객체경어법<sup>2)</sup>은 15,16세기 '-습-'과 그 이형태에 의하여 표시되어 굴절의 문법범주로 문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객체경어법의 형태소 '-습-' 등이 17세기부터 변화되어 상대경어법의 형태로 바뀜에 따라 객체경어법은 특수한 어휘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상대경어법<sup>3)</sup>은 청자를 대접의 대상으로 삼는 경어법으로 주로 종결 어미에 의해 여러 등급으로 실현된다.

개화기 교과서는 문어체로서 경어법의 등급을 살펴 보기에는 적당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신소설은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과는 달리 대화체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경어법의 등급을 살펴 보기에는 적당한 자료가 된다. 신소설은 대화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의 口語와는 거리가 있겠지만 그 당시의 口語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이 대화체이기에 그것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당시의 상대경어법 체계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또한 언어가 사회적인 현상이며 특히 경어법은 사회적인 특징이 강한 것이므로 경어법을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사회언어학적인 면에서 결정이 되므로 사회언어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 2.1 상대경어법 체계

- (1) 7. 학비누 잘 티여주시기를 바라누이다(혈의루 32)
  - ㄴ. 먹어도 맛을 아지 못하고 항상 민망히 지니옵나이다(추월색 76)
  - ㄷ. 기운 평안호오신지 굼굼호옵기 충양업습누이다(혈의루 82)
  - ㄹ. 평양에 계시던 일은 전칭일 갓습(혈의루 82)
  - ㅁ. 여보 어딴 갓습더닛가(귀의성 상 135)
  - ㅂ. 얼굴인들 좀 암전호며 지조인들 여간 조홉더닛가(추월색 47)

1) 주체경어법은 尊待法이라고도 부른다.

2) 객체경어법은 謙讓法이라고도 부른다.

3) 상대경어법은 公孫법이라고도 부른다.

(1)ㄱ의 '바라누이다'를 형태소 분석을 하면 '바라- + -누- + -이- + -다'가 된다. '-누-'는 직설을 나타내고 '-이-'는 15세기 국어에서 하소서체의 상대높임의 기능을 담당하던 '-이-'가 16세기 후반부터 'ㅎ'음가의 소실로 인하여 '-이-'가 된 것이다. '-이-'는 평서법 어미 '-다'와 의문법 어미 '-스 가/고'와 긴밀히 결합하여 각각 하소서체 평서법 어미 '-이다'와 하소서체 의문법 어미 '-잇가/고'를 형성한다.

ㄴ, ㄷ에서 보이는 '-습/옵누이다'는 '-습/옵니다'로 축약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 '-습/옵니다'와 '-습/옵네다'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표준어로 채택이 되고 후자는 방언으로 처리되고 있다. 4)

ㄹ의 '갓습'은 하소서체의 평서법 어미 '-누이다'가 생략된 것으로 공손의 선어말 어미 '-습/-옵-'이 문어체에서 종결 어미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근대국어의 하소서체는 '-니-'가 수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세국어에서는 평서법만 그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근대국어에서는 의문법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습-'개재형과 비개재형이 있다. '-습더니잇가'에서 '-이- 음축' 현상이 일어나면 '-습더닛가'가 된다(이현희 1982:72). 그러므로 (1)ㄹ, ㅅ의 '갓습더닛가', '조흠더닛가'는 하소서체이다.

(2) ㄱ. 서울 당겨와서 포뱃옵깃습니다(귀의성 상 15)

ㄴ. 이 압일은 혈후히 하여서난 묵습니다(귀의성 상 142)

15세기의 상대경어법을 나타내던 '-이-'가 16세기 후반부터 'ㅎ'음가의 소실로 인

4) 1986년 학부에서 발간된 <신정심상소학>에는 '-습/옵누이다'와 '-습/옵니다'의 예가 보인다. 그러나 개화기 신소설에서는 '-습/옵누이다'는 예가 나오나 '-습/옵니다'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ㄱ. 네부터 有名한 學者와 高明한 賢人이 만히 잇습니다(심상 2:3)

ㄴ. 軍歌를 큰 소리로 불으옵니다(심상 2:18)

5) 추사 김정희 선생이 33세 되던 해(1818년) 아내에게 보낸 언문 서찰에도 '압·삽'이 평서법과 의문법에 쓰이고 있다. (예문은 심재기(1985:225)에서 재인용)

ㄱ. 書役이 극난하여 못하였사오니 죄 많삽(나이이다)

ㄴ. 피와 일양(一樣) 하시압(나이까)

이때에도 '삽·압' 뒤에 하소서체의 평서법 어미 '나이다'와 의문법 어미 '나이까'가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ㄷ. 학문상에 유익하는 이는 이 칙을 종노칙편에서 사시옵(독립신문1)

김영철(1987:224)에서는 ㄷ의 독립신문에 나온 명령법의 기능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압'이 19세기 말엽에는 오늘날과 같은 문어체 명령법으로만 그 쓰임이 한정된 것으로 인한다고 했는데 본문(1)ㄹ에서 보여 주듯이 명령법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하여 ‘ㅎ’음이 분명하지 못하게 되자 객체경어법으로 쓰이던 ‘습’이 상대경어법으로 쓰이기 시작했다.<sup>6)</sup> 1618년에 著作되어서 1676년에 간행된 <첩해신어>는 저작 당시의 구어체를 반영한 것으로서 언급되고 있는데 ‘-습’이 상대경어법으로 쓰인 예를 보여 주고 있다.<sup>7)</sup>

(2)ㄴ의 ‘못습니다’에서의 ‘ㄴ’은 합쇼체의 원칙법인데 이 당시에는 자주 쓰이었으나 오늘날은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3) 7. 어머니 ㄴ는 졸업장 맛탓소(혈의 루 48)

ㄴ. 나는 우리 길순의 상각을 ㅎ면 ㅼ가 ㄴ는듯 ㅎ오(귀의성 상 3)

하오체 어미 ‘-오, -소’는 17세기 명령법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이기문 1972:214, 장경희 1977:119)이었으나, 19세기 국어에서는 명령법은 물론 평서법, 의문법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와 ‘-소’는 음운론적 제약에 의하여 자동 교체되는 이형태이다. 어간말음절이 ‘ㄹ’이외의 자음 아래서는 ‘-소’가 사용되고 서술어가 ‘ㄹ’이나 모음으로 끝날 때는 ‘-오’가 사용된다. 어간말 ‘ㄹ’은 이 ‘-오’ 앞에서 탈락된다.

현대국어에서는 하오체와 하계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어법인데 20세기 초기에는 상당히 활발히 사용된 경어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면의 사람들도 하오체를 사용하였고, 자식(딸)이 부모에게 하오체를 사용하였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오체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는 하오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경어법임을 알 수 있다.

(4) 엇지 ㄹ가 더럭 쓰이는지 별상각을 다 ㅎ 보았서요(빈상설 21)

‘-어요’, ‘-지요’는 해요체를 나타낸다. 이 당시의 해요체의 사용 빈도는 하소서체와 함께 가장 적게 사용된 경어법이다. 신창순(1984:256-263)에서 ‘-요’ 즉 해요체는 19세기 초에 성립되었으나(春香傳, 沈滄傳, 興甫傳 등의 대화에서 추출), ‘-요’가 경

6) 허용(1961) 참조.

7) 종용히 쉬옵소(첩해신어 1:20), 그리ㅎ을 거시니 ㅄ음 편히 너기옵소(첩해신어 1:15), 代官들도 ㅎ고되 잇습네(첩해신어 1:2)  
이상의 예들에서 <첩해신어>의 ‘-습-’의 사용법은 객체경어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상대경어를 표시하는데 사용되었다.

어법에서 많이 쓰이게 된 것은 1940년대부터로 보고 있다. 또한 고영근(1974), 서정수(1984)에서 해요체가 20세기 중반기 이후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는, 해요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이고 이미 19세기초에 형성되어서 개화기 시대에도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경어법의 등급보다는 해요체의 사용 빈도수가 적을 뿐이다.<sup>8)</sup>

- (5) ㄱ. 자네 눈우습만 하여도 사람 여럿 굶칠줄 아랏네(귀의성 상 27)
- ㄴ. 그 흥흔년이 어더서 싱것누(귀의성 상 131)
- ㄷ. 내가 무엇이라고 헛노(목단화 288)
- ㄹ. 엇지하면 고렷케 양큼하고 담디혼고(귀의성 상 132)

(5)ㄱ 같이 하계체는 '자네'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이 당시에는 (5)ㄴ, ㄷ, ㄹ 같이 '-구, -누, -고, -노'로 끝나는 의문법이 많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당시에는 하계체가 하오체와 함께 많이 사용되던 경어법이었다. 오늘날에는 하오체와 하계체가 격식을 차리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가 된다.

이와 같은 상대경어법 어미를 신소설 작품에서 분석해 본 결과가 다음과 같다.

<표 1> 신소설 작품에 나타난 경어법의 백분율<sup>9)</sup>

	하소서체	합소서체	하오체	(해요체)	하계체	해라체	(해체)
신소설	3(%)	14(%)	17(%)	5(%)	19(%)	30(%)	12(%)

이 백분율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하소서체와 해요체가 가장 적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 당시가 하소서체가 없어지는 마지막 단계임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지금까지 중세국어에 존재하던 하소서체가 현대국어에서는 문어체나 기도문에서만 사용이 되고 구어에서는 사용되지 않게 된 시기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였는데 이 통계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19세기말 20세기초, 즉 개화기 시대에 해요체가 분명히 사용되고 있다고 학언<sup>10)</sup>을 하면서도 하소서체가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에 것에 대해서는 인정

8) 민현식(1984:133)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9) 혈의루, 귀의성 상, 빈상설, 목단화, 추월색, 육호기연, 흥도화 상, 흥도화 하 의 8작품의 비율을 종합한 것이다. 각 작품의 상대 경어법 비율은 이경우(1990 : 83-87)참조.

10) 민현식(1984:133)참조.

하려들지 않았는데<sup>11)</sup> 이 통계는 하소서체의 사용을 증명하고 있다. <혈의루>에서는 하소서체(4%)가 해요체(2%)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화기 시대에는 하소서체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통계 수치가 해요체와 거의 비슷하게 작은 것으로 보아서 하소서체는 그 시대를 마지막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해요체는 그 후부터 많이 사용된 것으로 두 경어법의 운명이 완전히 반대가 된 것이다. 해요체가 하소서체와 비슷하게 적게 사용되는 것은 해요체가 이제 막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기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둘째, 그 다음으로 적게 사용되는 것이 해체이다. 해체에 대해서는 과거의 문법학자들이 경어법의 등급으로 인정하면서 해요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도 위의 통계 수치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해체는 해요체보다는 많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해라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는 변화하기 마련이고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인 경어법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세국어 시대부터 현재까지 변화하지 않고 남아 있는 유일한 경어법의 등급은 해라체이다. 하소서체도 이 시기를 마지막으로 소멸되고 호아씨체는 다시 하계체와 하오체로 분화되고 중세국어 시대에는 없었던 해요체와 해체가 생기게 되는 변화를 겪었으나 해라체는 그대로이다. 그러므로 해라체는 모든 문체법에 해당되는 어미가 다 있으며 신소설에서도 해라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넷째, 하오체와 하계체가 해라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은 하오체와 하계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하오체와 하계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경어법이었다는 사실이다. 19세기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추정하는 하오체와 하계체가 19세기말 20세기초는 활발히 사용되다가 오늘날은 그 자리를 해요체와 해체에 넘겨주고 격식을 차리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은 초면의 낯선 사람에게 주로 해요체를 사용하는데 비해서 그 당시에는 초면의 낯선 사람에게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하오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쓰임이 오늘날은 모두 해요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오체와 하계체의 쇠퇴는 해요체와 해체의 변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1) 성기철(1980), 민현식(1984), 신창순(1984) 등 모두 개화기 국어를 다루면서 해요체는 경어법의 등급으로 설정하면서도 하소서체는 경어법의 등급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 2.2. 경어법에 관여하는 요소

경어법은 사회적인 예의적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하는데 따라서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상호 관계에 따라 예의적 관계가 변화하며 거기에 따라 경어법이 달라지게 된다. 조선 시대는 班常제도에 따라 양반, 중인, 常人, 천민의 계급 제도가 철저히 지켜졌던 시대였다. 그것이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반상제도가 철폐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평등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한 사회제도가 언어에도 반영이 되어 경어법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1880년대부터 1920년대의 개화기는 아직도 조선 시대의 계급제도의 잔재가 남아있으면서 현대 사회로의 전환기이므로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언어생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신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는 현대와는 전혀 다르고 거의 조선 시대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신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상위 계층(양반), 중간 계층(중인, 상인), 하위 계층(노비)의 세 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계층에 따라 사용되는 경어법의 등급이 다르다. 그러므로 계층이 경어법 사용에 관여적인 자질이다.

또한 혈연 관계에 따라서 사용되는 경어법의 등급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혈연 관계도 경어법 사용에 관여적인 자질이다.

조선 시대는 유교적인 사회였으므로 남녀노소의 구별이 뚜렷했으며, 그에 따라 사용되는 경어법의 등급이 달랐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령도 경어법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관여적인 자질이다. 또한 조선 시대는 유교에 바탕을 둔 남존여비의 사상이 투철했으며 그러한 사상이 언어에도 반영이 되어 남녀 간의 경어법 사용에 있어서 차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별도 경어법 사용에 관여적인 자질이다.

부부 간의 경어 사용도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은 근본적으로 반상제도의 철폐에 따라서 사회 안에 있는 집단의 상하 관계의 서열이 없어졌으므로 계층에 따른 부부 간의 경어 사용에 있어서 차등이 없으나 개화기 시대만 하여도 부부 간의 경어 사용에 있어서 차등이 있었다. 그러므로 부부지간도 경어법 사용에 관여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사회신분', '친족', '연령', '성별', '부부지간'이 경어법에 관여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경어법의 등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됨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사회신분'과 '부부지간'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다.<sup>12)</sup>

12) '사회신분', '부부지간'의 자세한 것은 이경우(19907, 1990L, 1994L)참조.

'연령', '성별 관계'는 이경우(19907, 19947)참조. '친족 관계'는 이경우(19907, 1994C)참조.

### 2.2.1. 사회 신분

#### 2.2.1.1. 등장 인물의 신분

신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승지, 참봉, 참서, 참판, 생원, 참위, 동지, 침모, 유모, 첩지, 별감, 순사, 하인, 하녀'들이 등장한다. 조선시대는 양반, 중인, 常人, 천민의 4계층이었는데 신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주로 양반들과 중·상인들과 그리고 천민에 속하는 하인, 하녀들이 등장한다. 즉 중인과 상인이 따로 독립된 층위를 이룰 정도로 등장하지 못하므로 신소설에 나타나는 등장 인물들을 세 계층으로 나누었다. 즉 '승지, 참봉, 참서, 참판, 생원' 등 양반을 상위 계층으로 보았고 '동지, 침모, 유모, 참위, 첩지, 별감, 순사' 등 중인과 상인을 중간 계층으로 보았고 '하인, 하녀'들을 하위 계층으로 보았다. 신소설의 등장인물들의 각 계층 간의 사회적인 지위들이 현대 사회와는 다르고 조선 시대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제도가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경어법 사용도 현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오히려 조선 시대와 가까우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위와 같이 사회 신분에 따라 각 계층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계층과 계층 간의 경어법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2.2.1.2. 상위 계층과 중간 계층 간

계층 간의 경어 사용이 뚜렷한 <귀의성> 상을 모델로 계층 간의 경어 사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상위 계층에 속하는 김승지나 김승지 부인이 중간 계층에 속하는 침모나 유모에게 사용하는 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 자네 눈우습만 하여도 사람 여럿 굶칠줄 알았네. (귀의성 상 27)  
(김승지 부인이 침모에게 하는 대화이다.)
- (7) 자네가 어티를 가려고 교군을 갖다 노았나?(귀의성 상 23)  
(김승지가 침모에게 하는 대화이다.)

이상과 같이 상위 계층이 중간 계층에게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목단화>, <홍도화> 상·하, <빈상설>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중간 계층이 상위 계층에게 사용하는 경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귀의성> 상에서 중간 계층에 속하는 침



모, 유모가 상위 계층에 속하는 김승지나 김승지 부인에게 사용하는 경어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 령감 그릇케 감추실 것 무엇 잇습닛가?(귀의성 상 130)  
(침모가 김승지에게 하는 대화이다.)
- (9) 녕감게서난 놀보러 도동으로 장 오신답니다(귀의성 상 128)  
(침모가 김승지 부인에게 하는 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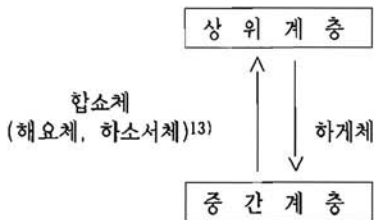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중간 계층이 상위 계층에게 주로 합쇼체를 사용하고 있다. 동시에 하소서체와 해요체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10) 한집에서 지닌는거시 너도리가 아니오닛가?(귀의성 상 130)  
(침모가 김승지에게 하는 대화이다.)
- (11) 어제밤일을 알고 느오셨는지요?(귀의성 상 60)  
(침모가 김승지에게 하는 대화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계층 간의 관계가 확실히 나타난 작품인 <목단화>, <빈상설>, <홍도화> 상·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계층과 중간 계층 간의 전형적인 경어법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2> 상위 계층과 중간 계층 간의 전형적인 경어법 모형



13) ( )가 없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 ) 속에 있는 것은 그 다음의 빈도수로 사용되는 것이다.

2.2.1.3.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

<귀의성> 상에서 상위 계층인 김승지와 김승지 부인이 하위 계층인 점순에게 사용하는 경어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2) 이인 점순아 네 어딴 가지말고 넌 밥상 이리 가져 오너라. (귀의성 상 63)

(김승지가 점순에게 하는 대화이다.)

(13) 내가 침모의 집에 갓을 썬에 정녕 춘천집이 업더냐?(귀의성 상 62)

(김승지 부인이 점순에게 하는 대화이다.)

이상과 같이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에게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에게 사용하는 경어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4) 사랑에 손님 오섯습니다(귀의성 상 70)

(점순이 김승지에게 하는 대화이다.)

(15) 인물은 엇지 그리 어엽썬지오(귀의성 상 89)

(점순이 김승지 부인에게 하는 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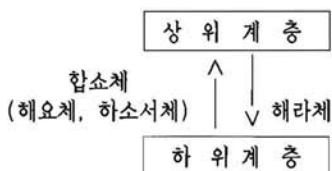
(16) 덕에는 못 올 데이오닛가?(귀의성 상 51)

(점순이 상위 계층인 박참봉에게 하는 대화이다.)

이상과 같이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에게는 주로 합쇼체를 사용하고 (15), (16)와 같이 해요체와 하소서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사이의 경어법의 전형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다.

<표 3>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전형적인 경어법 모형



그러나 [연령]이라는 자질이 관여를 하면 경어법의 등급이 달라진다. 같은 하녀라도 나이가 든 하녀에게는 해라체를 사용하지 않고 한 등급 높은 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혈의루>에서 상위 계층에 속하는 군의 부인이 미성년의 하녀인 설 자에게는 해라체를 사용하는데 비해서 같은 하녀인 노파에게는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같은 상위 계층인 옥년모가 하위 계층인 노파(장팔어미)에게 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대화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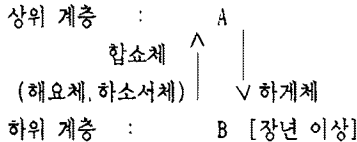
- (17) 여보개 흘뎌 이 편지 가지고 왔던 우테사령이 발서 군노?(혈의 루 92)  
(옥년모가 장팔어미에게 하는 대화이다.)
- (18) 글세말일세.(혈의 루 51)  
(군의 부인이 노파에게 하는 대화이다.)

위의 경우는 하위 계층이 노인인 경우인데 하위 계층이 노인보다 아래인, 즉 3-40대인 장년<sup>14)</sup>의 경우를 <빈상설>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 나는 먹고 십지 안이흐니 자너나 빅곰흔디 먹계(빈상설 8)  
(리씨 부인이 복단어미에게 하는 대화이다.)

상위 계층이 연령이 장년 이상의 하인이나 하녀에게는 해라체 대신에 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 계층이 장년 이상일 경우에만 해라체 대신에 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은 하위 계층이 성년일 경우에 해라체를 사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sup>15)</sup> 하위 계층의 성별에는 상관없이 연령이 장년 이상일 경우에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에게 하계체를 사용한다. 그것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대화에서 연령이 관여적일 경우



14) 이 경우 (1990, 1994)에서 연령을 4등급으로 나누었다.

未成年	婚姻前의 나이로 대체로 10代 중반기 까지
成年	婚姻後의 나이로 대체로 10代 후반부터 20代末까지
壯年	대체로 30代부터 40代까지
老人	대체로 50代부터 그 이후

15) 하위 계층이 성년일 경우에 해라체를 사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글세 그러면 엇지흐면 도흐냐?(목단화 280)" (상위 계층인 서병신이 성년인 작은돌에게 하는 대화이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경어법 사용에 있어서 성별이 관여적인 예를 볼 수가 있다. 해요체는 본래 어린이나 부녀자들이 즐겨 쓰는 말씨였는데(고영근 1974:83), 1950년대를 전후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말씨로서 퍼지게 되었다(서정수 1984:75)고 보는데 이 당시의 남자 하인보다는 여자 하녀들이 해요체를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남자 하인들은 거의 다 주로 합쇼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여자 하녀들은 합쇼체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해요체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합쇼체를 더 많이 사용하던지 해요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수의적이다.

〈홍도화〉 하에서는 상위 계층인 심과장 모와 남자 하인인 옥돌과의 대화에서 옥돌은 합쇼체만을 사용하였다. 심과장 모와 여자 하녀인 룡네와의 대화에서는 룡네가 합쇼체(40%), 해요체(60%)를 사용하고 있다. 〈목단화〉에서도 상위 계층인 정숙과 여자 하녀인 금년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금년이 정숙에게 합쇼체(38%), 해요체(62%)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숙과 남자 하인인 작은돌과의 대화를 보면 작은돌이 합쇼체(67%), 해요체(33%)를 사용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대화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령감마님게서 지금 곳 들어오신다구혀셔오(목단화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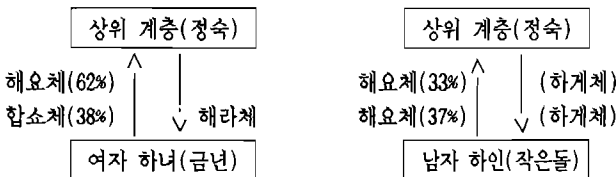
(하녀인 금년이 정숙에게 하는 대화이다.)

(21) 즈근아씨의 학교에서 청첩이 왔습니다(목단화 297)

(하인인 작은돌이 정숙에게 하는 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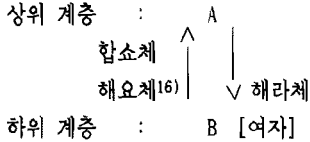
여자 하녀가 해요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예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여자 하녀가 해요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예



이상의 사실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5〉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대화에서 성별이 관여적일 경우



상위 계층인 A의 성별은 비관여적이고 하위 계층인 B가 [여자]일 경우는 해요체의 사용이 훨씬 많아진다.

#### 2.2.1.4. 중간 계층과 하위 계층 간

〈鬼의 聲〉 상에서 중간 계층인 침모, 유모가 하위 계층인 점순에게 사용하는 경어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22) 너가 주네 목소리를 듣고 춘천마마를 숨겼네(귀의성 상 34)  
(침모가 점순에게 하는 대화이다.)
- (23) 누는 오날일지라도 마님게 하직하고 가갓네(귀의성 상 97)  
(유모가 점순에게 하는 대화이다.)

이와 같이 중간 계층이 하위 계층에게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다. 하위 계층이 중간 계층에게 사용하는 경어법을 살펴보기 위하여 하녀인 점순이 침모, 유모에게 사용하는 경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24) 우의 사름을 그리 몫시 보시오?(귀의성 상 33)  
(점순이 침모에게 하는 대화이다.)
- (25) 이 덕에 잇서 무엇 하시갓소?(귀의성 상 97)  
(점순이 유모에게 하는 대화이다.)
- (26) 마님게서 그릇케 티단이 하실리가 업셔요.(귀의성 상 85)  
(점순이 침모에게 하는 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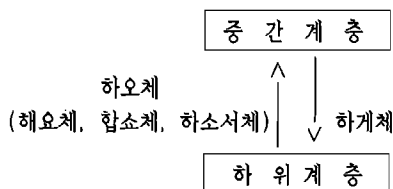
(24), (25)같이 하위 계층이 중간 계층에게 주로 하요체를 사용한다. 그러나 (26)과

---

16) ( )를 하지 않고 둘 다 그대로 표기한 것은 똑같이 많이 사용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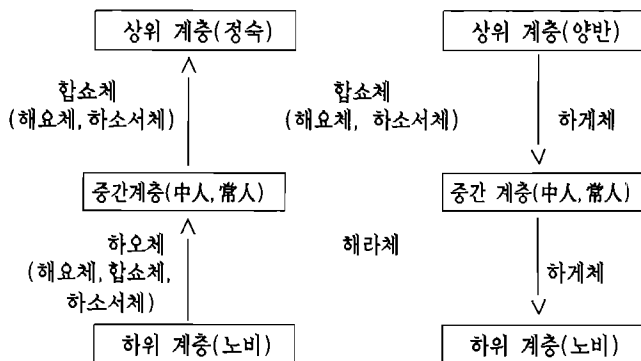
같이 해요체도 사용하고 합쇼체, 하소서체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목단화>, <빈상설>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중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경어법 사용의 전형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6> 중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전형적인 경어법 모형



이상의 계층 간의 전형적인 경어법 모형 외에 [연령], [성별] 자질이 적용되면 복잡해지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이상의 계층 간의 경어 사용을 종합해서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7> 세 계층 상호 간의 경어 사용



### 2.3. 부부지간

이상의 세 계층에 의한 부부 사이가 존재하는데 각 계층에 따른 부부 사이의 경어법사용이 다를 수 있다. 계층에 따른 부부 간의 경어 사용이 가장 잘 드러난 작

품은 <귀의성> 상이다. <귀의성> 상에서는 상위 계층인 김승지와 김승지 부인이 나오고, 중간 계층인 강동지와 강동지 부인이 나오며, 하위 계층인 작은돌과 점순이 나온다. 이 상의 세 계층의 부부 사이의 경어법 사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3.1. 상위 계층의 부부지간

상위 계층인 김승지와 김승지 부인의 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여보 원 히거를 그리 호오(귀의성 상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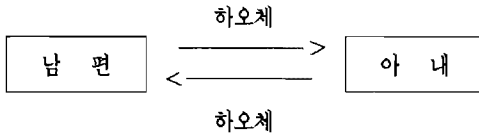
(김승지가 부인에게 하는 대화이다.)

(29) 령감 어서 침모 다리고 계동으로 가시오(귀의성 상 28)

(김승지 부인이 김승지에게 하는 대화이다.)

이상과 같이 김승지와 김승지 부인이 서로 주로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김승지와 김승지 부인이 서로 사용한 경어법의 백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승지는 부인에게 하오체(47%), 해체(37%), 하계체(12%), 함쇼체(4%)를 사용하고 있다. 주로 하오체를 사용하고 해체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오체와 해체를 합하면 84%로 거의 대부분이다. 김승지 부인이 김승지에게 사용한 경어법을 살펴보면 하오체(62%), 해체(26%), 하계체(8%), 해쇼체(4%)를 사용하고 있다. 하오체와 해체를 합하면 88%로 거의 대부분이다. 그 당시의 상위 계층(양반계층)의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빈상설>, <추월색>, <육호기연>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것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8> 상위 계층(양반 계층)의 부부 간의 경어 사용



2.3.2. 중간 계층의 부부지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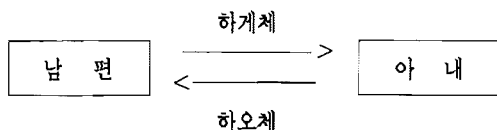
중간 계층 즉 중인인 강동지와 강동지 부인의 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우이 무슨 걱정잇누(귀의성 상 3)

- (강동지가 부인에게 하는 대화이다.)  
 (31) 여보 좀 가마니 잇소(귀의성 상 3)  
 (강동지 부인이 강동지에게 하는 대화이다.)

강동지는 부인에게 주로 하계체를 사용했고 부인은 강동지에게 주로 하오체를 사용했다. 강동지와 부인이 서로 사용한 경어법의 백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동지는 부인에게 하계체(76%), 해체(24%)를 사용하였다. 하계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이 해체이다. 강동지 부인은 강동지에게 하오체(69%), 하계체(7%), 해체(24%)를 사용하였다. 강동지 부인은 하오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해체를 사용하였다. 즉 중간 계층인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주로 하계체를 사용하였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로 하오체를 사용하는 차등이 있었다. 상위 계층과 중간 계층에서는 부부 양자가 모두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경어법이 해체(반말체)인 것이 공통되는 특징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9〉 중간 계층의 부부 간의 경어사용



3.3.3. 하위 계층의 부부지간

가장 낮은 계층, 즉 하인인 작은들과 그의 아내인 점순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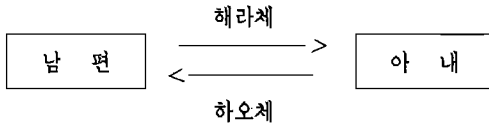
- (32) 이이 그것참 속 시연한 소리를 흐는구느 (귀의성 상 69)  
 (작은들이 아내인 점순에게 하는 대화이다.)  
 (33) 우이 인제 왓소 (귀의성 상 82)  
 (점순이 남편인 작은들에게 하는 대화이다.)

점순은 작은들에게 하오체(50%)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하계체(33%), 해체(17%)도 사용하였다. 남편인 작은들은 아내에게 해라체(69%)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해체(26%), 하계체(5%)도 사용하였다. 하층 계급의 부부 사이의 대화에서는 양반 계층과 큰 차이가 있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로 하오체를 사용했으나 그 다음으로 하계체를



사용했다. 즉 하계체의 사용 비율이 하층 계급으로 내려올수록 많아진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주로 해라체를 사용한 점이다. 즉 상층 계급 사이에서는 부부 사이가 평등한 관계에서 중간 계층, 하층으로 내려올수록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를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같은 사실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0> 하위 계층의 부부 간의 경어 사용



### 3. 조 사

곡용면에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체계나 용법이 거의 현대국어에 접근해 있었다는 것이다.

#### 3.1 주격 조사

주격 조사로는 오늘날과 같이 체언말음이 자음이면 '이'가, 모음이면 '가'가 쓰였다.

- (34) ㄱ. 너가 령감압해서 군슈노마시고 (귀의성 7)  
       나. 이 신문 보기가 쉽고 (독립신문 1)  
       다. 우리 학생들이 이일을 주야 칭각하야 (유년필독 2-16)  
       라. 거기 빅성들이 자주 독남하랴고 (독립신문 1)

'가'는 16세기 말엽에 처음 나타나 17세기를 거쳐 18세기에는 매우 빈번하게 쓰였던 것이다. 16·7세기에 나타나는 '가'는 체언말음이 'i'인 경우에 한정되었으나 18세기에는 'i' 이외의 모음 아래서도 나타나기 시작해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 쓰이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 '가' 'i' 모음 아래에서 쓰였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는 격조사가 아니라 첨사(particle)였음을 뜻하는 것이 되는데, 이 첨사 '가'가 뒤에 격조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sup>17)</sup>

그러나 교과서나 신문에서는 체언말음이 모음으로 끝나도 '이'나 'ㅣ'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주로 한자어 아래 쓰였다.

- (35) ㄱ. 保阜 |견일원슈를싱각지아니하고(유년필독 2-10)
- ㄴ. 무삼 念慮 |잇스리오(유년필독 2-9)
- ㄷ. 我 |엇지연락으로질기리오(유년필독 2-36)

<초등여학독본>에서는 한자로 표기되지 않은 '남녀', '즈', '부모', '녀즈' 등의 주격 조사로 'ㅣ'가 쓰였다.

- (36) ㄱ. 남녀 |여섯살의슈와방위일홈을가르치고(초등 4)
- ㄴ. 부모 |병환이게시거든(초등 23)

'나라, 바다'와 같이 중세국어에서 'ㅎ'종성체언이던 단어는 '이'주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 (37) ㄱ. 나라이 망하고 (유년필독 1-20)
- ㄴ. 바다이 삼분 일에 지나지 못하고 (한성주보 1-16)

그러나 신소설 자료에서는 완전히 오늘날과 같은 주격 조사의 쓰임이 있었다. 존칭의 주격 조사로는 '씨오셔', '씨셔', '계셔', '계옵서'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교과서와 신문에 나타났다. '계셔'는 신소설에도 나타난다.

- (38) ㄱ. 世宗大王계셔 萬古의 大聖人이시라(국민소학독본 5)
- ㄴ. 英祖계옵서 一日은 戶曹判書랄 入侍 식이사(신정심상소학 3-13)
- ㄷ. 세종씨셔 또 훈민정음을 지으사 (유년필독 3-13)
- ㄹ. 한양은 아 태조고황대씨오셔 도옵히신 곳이라 (유년필독 3-1)
- ㅁ. 경무스씨셔 아니 계셔도(독립신문 3)
- ㅂ. 누리계셔 부순으로 이스 가실 썩에 (혈의루 30)

17) 홍윤표(1980:243-246) 참조.

'계옵서'류는 존재의 존칭 동사 '계시-', '겨오시-'의 활용형인데 오늘날 문어체 형식인 '계옵서'로 이어져 있다. '피서'는 존칭의 여격표시 '피'에 후치사 '서'가 결합한 것인데 현대국어의 존칭 주격표시의 '께서'는 이 형태의 계승형이다.

### 3.2 여격 조사

치격의 하위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여격은 일반적으로 속격 조사 '이/의, 사'과 '그에(게 또는 기), 거기' 및 '손터'와의 결합으로 표시된다. 중세국어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속격 '이/의, 사'과 '그에/게'와의 결합형이다. 이때 '이/의'와의 결합형은 평칭이고 '사'과의 결합형은 존칭의 여격이 된다. 현대국어에서 전자는 '에게', 후자는 '께'로 변하였다. 그밖에 '드리다'(率)의 부사형이 문법화된 여격표시의 조사 '다려'가 있다.

개화기 교과서와 신소설에서는 주로 '의게'로 나타난다. 그러나 <몽학필독>과 유길준이 지은 <노동야학독본>에서는 현대와 같이 '에게'로 쓰였다. <혈의루>에서는 '의게'만 나타나나, <귀의성>(상)에서는 주로 '의게'가 쓰였으나 '에게'의 예도 조금 보인다.

- (39) ㄱ. 그 신하의게 일너 갈오되 (유년필독 1-20)
- 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함이며 (노동야학독본 2-2)
- ㄷ. 비에 있던 사람의게 구원흔거시 되앗더라 (혈의루 21)
- ㄹ. 만만헌 계집주식의게 호고 술만 취하여도 주정은 계집주식에게 호고 (귀의성 상 10)

존칭의 여격인 '피'도 사용되었으며 '다려'와 '헌테'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사용되던 '이/의 손터'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40) ㄱ. 天(하날)피 밍서하야 갈오되 (유년필독 2-4)
- ㄴ. 그 신하다려 일너 갈오되 (유년필독 1-24)
- ㄷ. 순검이 총순드려 불경헌 말을 호는 고로 (독립신문 1)
- ㄹ. 귀식기가 어미헌테 와서 말호되 (신정심상소학 1-13)

### 3.3. 대격 조사

개화기 국어의 대격 조사는 자음아래서는 대체로 ‘을’이, 모음 아래에서는 ‘를’과 ‘를’이 쓰였다. ‘를’과 ‘를’의 쓰임은 모음조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헌의 성격에 의해서였다. 즉 신문이나 신소설과 <초등어학독본>이나 <문학필독>이나 <노동어학독본> 등과 같은 교과서에서는 ‘를’이 쓰였고, <유년필독>과 같은 교과서와 성경류에서는 ‘를’이 쓰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를’은 의고적인 표기이고 현실적으로는 ‘를’로 발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개화기 국어의 대격 조사는 실제로는 오늘날과 같은 ‘을·를’ 체계라고 할 수 있다.

- (41) ㄱ. 이에 두사람이 크게 질거워 술을 마시더니 (유년필독 2-11)  
 ㄴ. 우리대한나라를 중흥하옵시다 (유년필독 2-16)  
 ㄷ. 살라거든 죽기를 모름쓰소 (노동어학독본 4-79)  
 ㄹ. 강동지를 보늬면서 그 눈치를 그 부인의게 (귀의성 상 상 22)  
 ㅁ.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날 처음으로 출판하넌타---우리 주의를 미리 말씀하  
 여 (독립신문 1)

개화기 국어에서 대격조사 ‘을·를’은 여격적 쓰임(42, ㄴ), 具格적 쓰임(43)의 기능도 일부 겸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다음의 예들이 그것을 말해 준다.

- (42) ㄱ. 노인이 그 말을 듣고 喜色이 滿面하야 그 柢를 第三子로 주니라 (국민소  
 학독본 12)  
 ㄴ. 혼 老구 | 鈍刀를 제 아달로 주고 (국민소학독본 53)  
 (43) 화성돈을 推戴하야 大統領을 숨고 져 아단스를 副統領을 숨으니라 (국민소학  
 독본 56)

특히 대격 조사가 구격적으로 쓰일 수 있었음은 ‘-을 因하야’ 형식이 개화기 국어에서 생산적인 질차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 (44) ㄱ. 바람을 因하야 振動하야 좌우 일정흔 距離로 往來하거늘 (국민소학독본  
 13)  
 ㄴ. 春夏秋冬이 이로 因하야 變하야 交生하난지라 (신정심상소학 3-36)

3.4. 속격 조사

중세국어의 속격 조사는 선행 체언이 유정물 지칭의 명칭일 경우에는 속격 조사 '이/의'가 결합하고, 부정물 지칭이나 유정물 지칭의 존칭 체언이면 속격 조사 '사'이 결합한다. 그러나 개화기에는 그러한 구별이 없어지고 '의'만이 쓰였다.

- (45) ㄱ. 아 대한이 곳 디구상의 강국이 될지라(유년필독 3-59)
- ㄴ. 육년의 눈에는 모다 처음 보는 것이라(혈의루 37)

3.5. 처격 조사

중세 국어에서 처격을 나타내는 격조사는 '애, 에, 예, 이, 의'가 있었다. 개화기에서는 '예, 의'가 사용되었다.

- (46) ㄱ. 시골구석에 사는 상년이라도 (귀의성 상 14)
- ㄴ. 기성 짜에 만이 심우고 (유년필독 3-37)
- ㄷ. 스람의 잇는 아람다운 덕이라 (초등여학독본 2)
- ㄹ. 무릇 너주 | 본집에 잇슬격의 넓피 일을 비와 (초등여학독본 13)

4. 어미 및 통사 구조

4.1. 근대국어의 종결법에서는 평서법 종결 어미의 경우 -더라, -이라, -노라, -니라'처럼 '-라'체로 특징지워짐이 중세와 마찬가지로였고 접속법도 '...하야 ...하고 ...하니 ...하며 ...하니 ...'처럼 장문의 만연체를 보임이 중세와 전연 동일하였다.

이러한 중세, 근대의 전통적인 종결법으로서 구형인 '-라'체와 만연체 어미의 접속법은 개화기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금씩 변화를 보여서 신소설이나 '소년(少年)지(誌)' 등의 신문학운동의 산문체에서 신형인 '-(ㄴ/는)다, -(았/었)다'와 같은 '-다'체로의 변화가 나타나며, 만연체의 접속법 대신 간결체의 접속법이 늘어나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한다.

원래 신형인 '-(ㄴ/는)다, -(았/었)다'체는 상위문의 종결법으로 정착되기 이전에 중세말부터 내포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김완진 1975:8), 근대국어에 와서는 고소

설이나 판소리 등 문학언어의 구어체에서 종결법으로 자리잡아 가던 것이다. 그런데, 개화기말에 이르러서는 신소설의 지문이나 '소년(少年)', '청춘(靑春)', '학지광(學之光)' 등의 신문학 잡지의 논설문체와 같은 문어체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민현식 1994).

- (47) ㄱ. 침모는 싱강씨를 만났더니 김승지 압흘 피호야 유모뒤에 가섯다 (귀의성상 24)
- ㄴ. 언덕우에 사름이 쏘 소리를 지른다(혈의루 7)
- ㄷ. 울커니 탐 그럴 뜻하다. 고마운 말삼 만히 드렸다. 감사하다. 나도 上級이 되면 이런 이치를 다 배호갓구나(소년 1:20)

그러나 신소설의 지문에서는 아직도 '-더라'로 끝나는 종결 어미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

4.2. 한편, 중세, 근대의 전통 산문체가 '호야, 호고, 호니, 호며, 호고, 호니'처럼 끊임없이 긴 연결 어미의 반복을 보여주는 것처럼 개화기 산문도 전반적으로는 만연체의 장문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다음 ㄱ, ㄴ과 같은 '-니'의 반복적 출현은 현대 문과는 분명 다른 구조로 다음 ㄷ에 제시한 중세문의 모습과 같다.

- (48) ㄱ. 영어학교 교사와 학도들이 이돌 잇흔날 동소문 밖기로 화류를 갖다니(a) 오티 학교 속에서 공부하다가 조흔 일기에 경쳐 조흔디 가서 몹은 공기를 마시고 장부에 운동을 호는거슨 진실로 맛당한 일이니(b) 다만 ㅁ옴과 지 각만 비양홀게 아니라 조션 사름들이 몸 비양호는 것도 ㅁ우 쇼중흔 일이니(c) 몸 비양호는디는 몹은 공기에 운동호는게 데일이요 목욕을 자호호야 몸을 경호게 호는거시 데일이라(독립신문 1권 13, 잡보)
- ㄴ. 하로는 그 사외 감관일이가 부순 최씨집에 와서 란리 격근말도 호고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즈 하는 목적을 말호니(a) 최씨가 학비를 쥬어서 외국에 ㄱ게 하고 최씨는 그 쏘과 외손녀의 상사를 자세히 알고즈 호야 평양에 왔더니(b) 그 쏘이 티동강 물에 빠져 죽을 초로 벽상에 그 회포를 쓴 것을 보니(c) --- (혈의루25)

중세 이래 개화기까지 지속된 만연체 어미 체계에서 '-라'로 맺어지면 분명한 문장

의 끊어짐이 느껴져 종결 어미로 보지만 '-니'로 끝난 경우는 비종결 어미, 즉 연결 어미로 보아왔다. 이는 현대의 '-니'가 설명(-니1)이나 이유(-니2)의 절을 인도하는 연결 어미인 점에서 동일하게 본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전통적 산문체에서 쓰인 '-니' 중에 분명히 '이유' 의미를 보여주는 '-니2'를 제외하고 '설명'의 '-니1'으로 보이는 것들이 계속 빈번히 이어져 나타날 경우는 중세적 문장 구조상 연결어로 보면 문장 호흡이 어색하고 너무 길어져 과연 우리 조상들이 이들 '-니1'을 연결 어미, 즉 문장이 미완성된 비종결 어미 단위로 인식했겠는지 의심이 든다. 오히려 이 '설명'의 '-니1'은 어느 정도 '-라'에 준하는 중간적, 잠정적 문장 종결 단위, 즉 준종결 어미로 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상 '-니1'이 뜻하는 '설명'이란 것도 잠정적 서술 종결 문맥으로 볼 수 있기에 서술 종결 어미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sup>18)</sup>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글을 문장보다는 문장이 모인 단락이나 이야기(텍스트) 단위로 파악하여 '-라'를 문장보다 큰 단위인 단락이나 이야기 단위의 종결 어미로 파악하고 '-니1'을 그보다 작은 문장 종결 어미로 파악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目連이 그 말을 들좁고 즉자히 入定하야 퍼엿던 불홀 구필 쓰시에 迦毗羅國에 가아 淨飯王의 安否 솟더니(a) 耶輸 | 부덕使者 옛다 드르시고 青衣를 브려 그별 아라 오라 하시니(b) 羅喉羅드려다가 沙彌 사모려 하느다 홀씨 耶輸 | 그 그별 드르시고 羅喉羅 더브러 노푼 樓 우희 오르시고 門 들홀 다 구디 잠겨 뒸더니(c) 目連이 耶輸사 宮의 가보니(d) 門을 다 즈무고 유무 드룸 사름도 업거늘 즉자히 神通力으로 樓 우희 느라 올라 耶輸사 알피 가 셔니(e) --- (석보상절6:1,2)

위글은 (a)-(e)처럼 '-니'가 연속된 글인데 이들을 모두 원인의 '-니2'로 보면 어색하다. 이는 '-니2'와 동의적인 '-니까'로 이들을 모두 바꿀 때 어색한데서 쉽게 드

18) 이현희(1994:63)에서 중세 국어의 연결 어미 '-으니'를 [전제]의 '-으니'와 [발견]의 '-으니'로 나누었는데 [전제]의 '-으니'는 선행문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후행문에서 상황이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표현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의미단락을 만드는 역할도 한다. 모든 사르미 비록 六師의 마를 드러도 大地 뒸디 아니랴 하야 무수미 金剛 곤하야 如來를 渴望하야 울워수보미 목 몰라 물 먹고져 홈 고더니 그씩 世尊이 刀利天에 겨샤 --(월석 21:200)  
 <법화경언해>에서는 品 전체에 대한 계환의 해를 언해하면서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을 종결 어미로 끝내지 않고 항상 연결 어미 -으니로 끝낸다. 이 점도 -으니가 의미단락을 짓는 기능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이는 사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러난다. 반면 '-니1'들을 '-라'에 가까운 준종결 어미로 보면 문맥 분절이 가능하고 글이 분절화되어 논리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세, 근대의 어미 '-니'를 준종결의 '-니1'과 연결(접속)의 '-니2'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민현식 1994).

4.3. 인용법의 경우 현대 국어는 '주어+〈인용문〉+라고+모문동사'의 구조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중세에는

- (49) '比丘 | --- 날오되 ---〈너희둘히 당다이 부테 드외리라〉 허더니'  
 '주어 + 모문동사 + 〈인 용 문〉 + 인용대동사' (석보 19:30)

와 같은 구조로 된 것이 보통이며 인용 조사(인용보문소)가 없었음이 특징인데 때로는 인용 대동사가 생략되기도 한다(고영근 1987:316). 근대에도 이런 구조는 유지되는데 대신 인용 조사로 알려진 '-(라)고'가 〈인용문〉과 대동사 '허다' 사이에 개입되어 '주어 + 모문동사 + 〈인용문〉(라)고 + 허다'의 구조로 되는 것은 개화기의 독립신문에서나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될 만큼 훨씬 뒤의 일이다(김형철 1991).

- (50) ㄱ. 조선사람들이 외국 사름 티접하는 거슬 싱각허거드면 붓그러운 모습이 스스로 나노라고 허더라(독립신문 1권 94호 잡보)  
 ㄴ. 이번에 호적을 밧고 인명 수효되로 세전을 거둔다고 허야(독립신문 1권 94호 잡보)  
 ㄷ. 휴인을 잘 차자 주라고 허엿다더라(독립신문 1권 93 잡보)

4.4. 그밖에 어미 '-거드면'은 독립신문에서 잘 쓰였다. 이는 '-르 것 같으면'의 축약 형태로 보인다.

- (51) ㄱ. 저녁에 목욕을 하고 자거드면 첫지는 밤에 잠을 잘 자니 죠코(독립신문 1권 19 논설)  
 ㄴ. 부국강병 되는 거슬 못되 이 티답을 허자거드면 여러날을 말허여도 쏫칠 슈가 업슨즉(독립신문 1권 11 논설)



## 5. 결 론

개화기의 상대경어법을 신소설을 자료로 분석한 결과, 그 당시에는 하오체와 하계체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 경어법이었다. 하소서체가 없어지는 마지막 단계이며 해오체가 막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어법이 사회언어학적인 특성이 강한 것으로서 '사회신분', '친족', '연령', '성별', '부부지간' 등에 의해서 사용되는 경어법의 등급이 달라지는 것을 살펴 보았다.

공용면에서는 현대국어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통사변화는 '-라'체에서 '-니/는다, -았/었다'체로의 변천과 만연체에서 간결체로의 변천과 같은 통사구조상의 시제법이나 문말 서법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들 수 있다.

개화기 국어는 그 대상 문헌 자료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광범위하고 넓어 그 전모의 파악이 쉽지 않다. 관부 자료, 언론 자료, 문법서 자료, 사전 자료, 언해 자료, 신문학 자료, 교과서 자료, 종교 자료, 학술 자료 등 그 영역과 성격이 다양하고 편저자도 국내의 인물에 걸쳐 있어 복잡하다. 앞으로 그러한 모든 자료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규선(1989), 20세기 초기 국어의 경어법연구,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  
 강운호(1975),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교육출판사.  
 고영근(1973),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9-2.  
 ——(1987), 표준 중세 국어문법, 탐출판사.  
 ——(1974), "현대국어의 존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김두현(1969),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출판부.  
 김종훈 편(1984), 국어경어법 연구, 집문당.  
 김형철(1984), "19세기 말엽의 국어에 대하여", 어문논집1, 경남대.  
 ——(1984), "19세기 국어문체의 한 양상(1)", 소당 천시권 박사화갑논총.  
 ——(1986), "한성주보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백민 전재호박사화갑논총.  
 ——(1987), 19세기말 국어의 문체, 구문, 어휘의 연구, 박사학위논문(경북대).  
 ——(1991), 개화기 문헌의 인용문 표현 연구, 서재극 교수 회갑기념 논총.  
 민현식(1984), "개화기 국어의 경어법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9, 서울대국문과.

- (1994유인물), “개화기 국어의 제 문제”, 한글날 기념 국어국문학 학회 연합회 학술회의 발표 논문.
- 서정수(1980), “존대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2)”, 한글167.
- (1984),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 성기철(1980), “개화기 국어의 화계”, 서울 산업대 논문집 4.
- 신창순(1984), 국어문법연구, 박영사.
- 안병희 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왕한석(1986), “국어 청자 존대어 체계의 기술을 위한 방법론적 검토”, 어학연구 22-3.
- 이경우(1990ㄱ), 최근세 국어에 나타난 경어법 연구, 박사학위논문(이화여대).
- (1990ㄴ), “최근세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애산학보 10, 애산학회.
- (1994ㄱ), “최근세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2)”, 이화여대논문집 13,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 (1994ㄴ), “사회신분에 따른 문제”, 국어문제론, 대한교과서.
- (1994ㄷ), “최근세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3)”, 애산학보 16, 애산학회.
- 이기문(1970), 개화기 국문 연구, 한국문화연구소.
- (1972), 국어사 개설, 민중서관
- 이현희(1982), 국어의 의문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연구 52.
- (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임재수(1982), 20세기초기 국어의 경어법체계에 대한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장경희(1977), 17세기 국어의 종결 어미 연구, 서울대 대학원.
- 최재석(196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민조사.
- 홍윤표(1980), “근대국어의 격연구(1)주격”, 일산 김준영 선생 화갑기념 논총.